7.27
위대한 전승
7.27 만세!
312
★ 영웅조선, 영웅인민의 무한한 자긍심을
안고 위대한 전승 69돐 뜻깊게 기념
★ 기쁨과 행복 넘치는 송화거리
조선
주체111
(2022)
8
(794)

주체45(1956)년 4월
화보《조선》창간

차 례 CONTENTS

특별소식

소 식

기념편집

오늘의 조선

체 육

표 지: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 성대히 진행

뒤표지: 조선인민군 공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기교비행

편 집: 신재철, 김정철, 김규성, 승 룡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일군 특별강습회를 지도

조선로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일군 특별강습회가 7월 2일부터 6일까지 4. 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특별강습회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일군 특별강습회 개강을 선언하시고 조선혁명의 새로운 력사적단계에서의 당조직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밝힌 강령적결론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조직들에 대한 당중앙의 령도를 보장하고 우리 당을 기초와 기층이 굳건한 조직적전일체로 만들며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함에 있어서 당생활지도부문의 책임적인 사명과 역할의 중요성은 혁명이 전진할수록 더욱 부각되고있다고 하시면서 당을 강화하자면 당조직부가 언제나 기치를 들어야하며 그 기수는 바로 당생활지도부문 일군들이 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건설에서 내세우는 요구이고 원칙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년간 당안의 부서들과 부문들의 당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여러 대회와 부문별강습회들을 진행한데 이어 이번 강습회를 특별히 품을 들여 소집한 취지에 대하여 밝히시면서 당생활지도부문 일군들의 사업능력을 높여주는것은 우리 당을 전도양양한 혁명적인 당으로, 전투력있는 사회주의집권당으로 강화하는 로정에서 반드시 필수적이며 혁명적인 공정으로 되며 여기에 특별강습회의 의의가 있다고 부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결론에서 당생활지도부문 일군들의 기본임무와 당생활조직과 지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주요4대원칙과 6대과업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각급 당조직들을 철저히 장악통제하고 일군들과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 당중앙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현시기 당생활지도부문앞에 나서는 기본임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의 기치를 꿋꿋이 고수하고 우리당 투쟁강령의 성공적인 실행에로 당조직과 대중을 완강히 견인하여야 할 당생활지도부문 일군들의 책임과 임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재삼 강조하시면서

당생활지도부문의 전투력이자 조직부의 전투력이고 우리 당의 전투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강습회참가자들이 성스러운 우리 당의 위업수행에서 핵심적역할을 다해나가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표명하시면서 모두다 당중앙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전투력을 위하여, 위대한 인민의 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더욱 견결하게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강습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가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 사업총화보고를 제기하였으며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실무강습에서는 당조직건설사상의 정당성과 과학성, 생명력에 대하여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해설되였으며 당생활지도부문앞에 나선 과업들을 당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취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특별강습회 폐강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각급 당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이 우리 당을 강력한 령도적정치조직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당조직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하는데서 기본견인기, 주축이 되여야 한다는것이 특별강습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이라고 언명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생활지도부문 일군들은 담당단위에서 당정책을 얼마나 실속있게 관철하는가 하는데 따라 자기의 당성과 함께 실력이 평가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분발하여야 하며 항상 당의 로선과 정책에 립각하여 모든것을 투시, 진단하고 처리해나가며 강한 장악지도력, 투쟁력으로 담당단위 사업의 발전과 당결정집행의 완결을 담보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생활조직과 지도에서 철칙으로 견지하여야 할 중요문제들을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강습회참가자들이 당중앙의 뜻과 구상에 사고와 행동을 일치시키고 전당강화를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고히 지키며 새로운 각오와 굳센 의지, 참신한 기풍으로 당의 강화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로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일군 특별강습회 폐강을 선언하시였다.

제1차 도, 시, 군당 조직부
당생활지도과 일군 특별강습회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일군 특별강습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8일 조선로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일군 특별강습회 참가자들과 함께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정원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이 새로운 발전국면에 들어선 중대하고도 력사적인 시기에 특별강습회를 조직한 당중앙의 의도를 명심하고 강습회기간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당의 혁명적당풍과 령도술을 체현한 유능한 정치일군, 참된 공산주의자로 준비하기 위하여 전심전력하여온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강습회에서 포치한 주요4대원칙과 6대과업을 틀어쥐고 일군들과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자기앞에 맡겨진 중대한 책임을 다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습회기간에 진행된 정치실무능력판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해당 일군들을 특별히 만나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전승세대가 피로써 전취한 조국수호, 전민항전의 승리는 우리 민족사와 세계혁명사에 전무후무한 영웅신화이고 신생조선의 영웅성과 강대성의 기틀을 다져놓은 력사적사변으로서 이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제일자산, 필승불패의 든든한 밑뿌리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이 강대해질수록 값비싼 희생과 불멸의 위훈으로 자주강국의 초석을 굳건히 다진 위대한 혁명세대의 영웅정신과 투쟁기풍을 순간도 잊지 말고 빛나게 계승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당, 전민, 전군이 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만장약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우리 조국은 기적적승리와 더불어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승리전통으로 빛나는 7. 27의 기적을 안아온 위대한 년대의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9돐에 즈음하여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과 국방성 지휘성원들, 조선인민군 군종사령관들, 대련합부대, 련합부대 군정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앞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자기의것에 대한 사랑, 자기의 힘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고 준엄한 전쟁의 포화를 헤치며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승리전통으로 빛나는 7. 27의 기적을 안아온 위대한 년대의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렬사묘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쟁의 세기》로 불리우는 20세기의 한복판에서

특별소식
7.27.
영웅조선, 영웅인민의 무한한
자긍심을 안고 위대한 전승 69돐
뜻깊게 기념

수도 평양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앞에서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였다.

기념행사의 례식이 진행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전쟁로병들과 함께 나오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의 열광의 환호에 따뜻이 답례하시며 전승절을 맞는 전국의 전쟁로병들과 전체 인민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이 기념행사에 초대되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전승혁명사적부문 강사들, 혁명학원 학생들, 청년대학생들,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민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국방성 책임일군들, 군종사령관들, 대련합부대, 련합부대 군정지휘관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히 주악되는 속에 전승절의 밤하늘가에 성스러운 람홍색공화국기발이 서서히 게양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전승절기념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승세대와 그 후손들이 터치는 우렁찬 환호성이 또다시 하늘땅을 뒤흔들었다.

열광넘친 환호가 분출하는 속에 장쾌한 축포발사가 시작되였다.

위대한 전승절을 기념하는 특색있는 공연이 시작되였다.

공연무대에는 전시가요들과 승리의 년대들에 투쟁과 신념의 노래로 높이 울린 명곡들이 올랐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환희로운 축포들이 련이어 터져올라 명절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년대의 승리전통과 투쟁기풍이 우리 인민과 새세대들을 백절불굴의 애국투사들로 키우는 훌륭한 자양분으로, 새로운 승리와 기적을 끝없이 탄생시키는 진함없는 원천으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며 걸음걸음 따라서는 전쟁로병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다.

7.27.

특별소식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가장 영웅적인 세대이다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

주체111(2022)년 7월 27일

존경하는 조국해방전쟁참전자동지들!

혁명의 로선배들과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고있는 전승혁명사적부문 강사들과 일군들, 인민군군인들과 청년대학생, 혁명학원 학생동무들!

친애하는 평양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전체 인민들!

동지들!

크나큰 자부와 소중한 추억을 안고 또다시 맞는 승리의 7.27입니다.

세기적인 기적이 탄생한 그날로부터 2만 5,203일의 기나긴 세월이 흘렀으나 전승의 환희와 영광이 바로 어제런듯 해마다 그러했듯 오늘의 우리의 감격과 자부는 끝이 없습니다.

동지들!

우리 조국에 불멸의 영광과 명성을 안겨준 위대한 전승절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로병동지들!

나라사정도 어려운데다 얼마전에는 보건위기까지 겪은 판국에 오늘처럼 모든분들께서 이렇게 귀체를 보존해주셔서 고마운 마음 이를데 없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동지들!

지금 이 시각 온 나라는 조국의 자주권과 영예를 지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인민군렬사들과 혁명렬사들의 빛나는 삶을 추억하고 그들의 위대한 넋과 정신의 영생을 기원하며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습니다.

수많은 유명무명의 참전렬사들이 이제는 우리곁에 없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로병동지들도 많지만 그들 모두는 자기들이 피로, 목숨으로 지켜낸 조국의 품에 안겨있으며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영광의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쟁로병동지들이 건강장수하여 앞으로도 이같이 긍지스러운 로병대회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당과 정부의 위임에 따라 우리 인민에게 세세년년 위대한 전승을 경축하는 특전과 무상의 영광을 안겨준 1950년대의 승리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의 초석을 마련해주고 오늘도 우리모두에게 정신적기둥으로 큰 힘이 되여주시는 온 나라 로병동지들과 전시공로자동지들에게 충심으로부터의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전쟁로병동지들의 가족들께와 로병동지들의 건강보전과 생활에 수고와 진정을 다 바치고있는 모든 고마운분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제국주의침략을 물리치는 한전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과 생사를 같이하며 고귀한 피를 아낌없이 흘린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며 지원군 로병동지들에게도 뜨거운 인사를 보내는바입니다.

동지들!

7월 27일은 우리 국가의 뜻깊고 경사로운 명절들가운데서 승리를 기념하는 류달리 긍지스러운 명절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인민에게 있어서나 자기 운명이 판가리되는 전쟁을 이긴것만큼 자랑스럽고 빛나는 영광과 영예는 없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령토와 인민을 사수하기 위한 생사존망의 조국방위전이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민주주의진영과 제국주의진영으로 대립된 두 극간의 처음으로 되는 격렬한 대결전이였습니다.

미제가 저들의 군대만이 아닌 방대한 추종국가군대를 조선전쟁에 투입하였다는 그 사실자체가 조선전쟁의 치렬성과 국제적성격을 보여주는것입니다.

창건된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국가의 청소한 군대가 지구상의 제일 포악한 미제국주의침략군대와 그 추종무리들을 상대로 싸운다는것은 너무도 중과부적이였습니다.

그러나 력사가 엄정히 기록한바와 같이 일거에 우리 령토를 병탄하고 자기의 지배권을 확대하려던 미제의 오만한 침략야망은 첫걸음부터 전대미문의 강력한 반격과 무서운 용감성에 부딪쳤으며 3년간의 고전끝에 결국은 정전협정의 조인으로써 여지없이 좌절되고야말았습니다.

조선전쟁에서 미제국주의와 그의 동맹국군사력은 심대한 패배를 당한것입니다.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 자주권을 사수하고 국가의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가장 영웅적인 세대이다

자주적발전환경을 지켜냈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제패 전략실행을 저지시키고 새로운 세계대전을 막아 인류 평화를 수호한 여기에 우리 민족사와 세계전쟁사에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는 조국해방전쟁승리의 거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지구의 동방일각에서 반제투쟁의 가장 첨예한 전초선을 굳건히 지켜낸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야말로 침략자에 대한 수호자의 승리, 불의와 반동에 대한 정의와 진보의 승리이며 아무리 강대하고 우세한 침략자도 결사항전에 궐기한 군대와 인민을 당해낼수 없다는 철리를 실증한 인류사적인 승리입니다.

이 전설적인 기적을 탄생시킨 주인공들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 우리 로병동지들이며 동지들이 지금도 잊지 못해하는 수많은 전우들입니다.

영용한 전화의 조국방위자들이 포연탄우속에 육박해간 무수한 섬멸의 길들을 거쳐 승리라는 값비싼 영광이 탄생하게 되였고 진격의 선봉에 추켜들었던 공화국기는 영웅조선의 아들딸들의 값비싼 선혈로 더욱 짙게 물들어 영웅성과 승리와 정의의 상징으로, 반제투쟁의 불멸의 기치로 전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습니다.

동지들!

지금과 같이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생사존망의 준엄한 전쟁위기를 주저없이 맞받아나갔던 로병세대의 불굴의 기개가 더욱 귀중하게 여겨집니다.

누구나 잘 알고있는것처럼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청년들이였지만 조국을 지키는 전장에서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민족의 장한 아들딸들이였습니다.

일터와 학원에서 너무도 순박했던 사람들이 용약 군대에 탄원하여 미제국주의침략군대와 용감히 대적할수 있은것은 바로 자기 당, 자기 정권에 대한 믿음,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이 확고하고 새 나라의 주인, 새 생활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키려는 의지가 강렬했기때문입니다.

우리 로병세대는 고마운 자기 제도와 자기의 고향과 일터, 자기 부모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또한 그 모든것을 빼앗으려는 원쑤에 대한 증오로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과 가슴저린 희생의 아픔을 억척스럽게 이겨냈으며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잔인하고 야수적인 침략자들에게 공포와 절망을 안기였습니다.

소박하고 평범했던 인간들이 자기의것을 지켜 죽음도 불사하고 나설 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똑똑히 보여준것이 우리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였습니다.

이렇듯 피흘려 조국의 존엄과 명예, 령토와 자주권을 지켜내고도 한생토록 변함없고 사심없이, 견실하고 대바르게 조국을 위해 헌신하며 후손들에게 애국적삶의 본보기를 가르쳐준 여기에 우리 전쟁로병들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참인간상, 고결한 풍모가 있습니다.

유명무명의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이 이룩한 불멸의 공훈을 떠나서는, 전승세대가 바쳐온 티없이 순결한 헌신적복무를 떠나서는 우리의 귀중한 사회주의제도와 오늘날 더욱 강대해지는 위대한 우리 국가를 생각할수 없습니다. 참으로 전쟁로병동지들은 력사의 풍파속에서도 억척불변한 우리 공화국의 주추를 다진 가장 영웅적인 세대이며 백절불굴하는 위대한 조선인민의 전형들입니다.

동지들이 한생 발휘해온 충실성과 용감성, 애국심은 오늘 수천만 인민들속에 그대로 높뛰고있으며 1950년대 준엄한 포화속에서 탄생한 위대하고 우수한 그 특질을 자기의 유전성으로 가지였기에 우리 혁명은 세대를 이어서도 그 어떤 어려움속에서도 좌절도, 후퇴도 없이 자기 위업을 자기의 힘으로 굴함없이 개척해나가고있는것입니다.

동지들!

우리에게 있어서 전승의 날은 단순히 지나간 영웅시대의 항전사를 기념하고 돌이켜보는 경축의 날로, 회억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날은 가장 간고처절했던 년대에 가장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신 력사의 체현자, 증견자들앞에서 오늘 우리의 투쟁이 그 위대한 전통의 계승이라고 떳떳이 자부할수 있는가를 되새기며 신심과 용기를 가다듬고 열정과 투지를 돋움는 소중하고 의의있는 계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전승세대가 70년전에 떠올린 국가의 영광과 영예를 현시대의 높이에 맞게 더욱 빛내이고 다음대에로 굳세게 이어놓아야 할 중대한 력사적책임이 지워져있습니다.

전승세대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다음세대를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야 합니다.

전화의 영웅정신을 억척같이 재워 국가방위력을 더욱 강하게 다지는것은 공화국의 국익수호와 자주적발전의 근본담보입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부터 핵위협을 서슴없이 가해온 미국과 첨예하게 대치해온 우리 혁명의 지나온 력사적환경은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국가의 자위력을 응당한 수준에 올려세울것을 요구하였으며 우리는 간고한 투쟁을 통해 이 절요한 력사적과업을 실현시켰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전후 근 70년간에 걸치는 치렬한 반미대결속에서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자위를 위한 전략적잠재력을 강력히 비축한것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승리에 못지 않는, 그보다 더 위대한 승리로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머무를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 가장 엄중한 위해를 끼친 미국은 오늘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위험한 적대행위를 그치지 않고있습니다.

미제는 《동맹》강화라는 미명하에 남조선당국을 추동질하여 자살적인 반공화국대결에로 떠미는 한편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을 추구하면서 근거없는 그 무슨 《위협설》을 집요하게 내돌리고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우리의 《위협설》을 고안해내고 그것을 《신빙성》있게 류포시켜놓은 다음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는것이 바로 미제국주의의 체질화된 정책실행수법입니다.

미제는 늘 그러했듯이 최근에도 국제적으로 반공화국 여론을 꾸준히 확산시키면서 우리 국가를 지역의 정세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으로, 《위험국가》로 묘사하고있습니다.

우리 무력의 일상적인 모든 행동들을 《도발》로, 《위협》으로 오도하고있는 미국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을 뻐젓이 벌려놓고있는 이중적행태는 말그대로 강도적인것이며 이는 조미관계를 더이상 되돌리기 힘든 한계점에로, 격돌상태로 몰아가고있습니다.

미제가 우리 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과 여론을 조종하여 《악마화》해보려고 집념하고있는것은 세계평화의 교란자로서의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고 불법무도한 적대시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상투적인 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여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여있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혔습니다.

미제의 오만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제와는 사상으로써, 무장으로써 끝까지 맞서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언합니다.

미국이 우리 국가의 영상을 계속 훼손시키고 우리의 안전과 근본리익을 계속해 엄중히 침해하려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이 기회를 빌어 힘에 대한 비정상적인 과욕과신에 빠져 광기를 부리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실행에 앞장서는 남조선보수《정권》과 호전광들에게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전승절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는 지금 이밤, 이 순간도 250여㎞의 전선 남쪽에서는 혐오스러운 대결광, 불량배들이 군사적광기에 열이 올라 우리 국가를 위협하는 각종 군사행동들을 벌려놓고있습니다.

올해에 집권한 남조선의 보수《정권》은 력대 그 어느 보수《정권》도 릉가하는 극악무도한 동족대결정책과 사대매국행위에 매달려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끌어가고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의 새 《정권》은 우리 정권과 군대를 다시금 《주적》으로 규정해놓고 동족대결상황을 대비한다는 쓸데없는 겁에 질려 악청을 돋구고 온갖 몸쓸짓, 부적절한 행동들을 일삼고있습니다.

이자들은 《힘에 의한 평화》와 《힘에 의한 안보》를 꺼리낌없이 제창하고있으며 우리 국가의 전쟁억제력을 무력화시킬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고 허세를 부리였습니다.

남조선은 이 시각도 우리에 비한 저들 군사력의 렬세를 조금이나마 만회해보려고 무기개발 및 방위산업강화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미국의 핵전략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있으며 여러가지 명목의 전쟁연습들을 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들의 안보와 관련해 더욱더 빈번해진 남조선것들의 허세성발언들과 형형색색의 추태는 핵보유국의 턱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으로부터 출발한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저마끔 나서서 해대는 허세성발언들이 저들 국민들에게는 신뢰할만한 철통같은 안보태세와 선진군사력으로 인식되고 위안으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보기에는 잔뜩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는 몰골로만 보입니다.

남조선것들이 그 무슨 《한국형3축체계》라는 개념을 세워놓고 핵심전력을 키운다고 고아대고 천방지축 날뛰고 있지만 남조선은 결단코 우리에 비한 군사적렬세를 숙명적인것으로 감수하지 않을수 없으며 그 언제든 절대로 만회할수 없을것입니다.

저들이 실제로 제일 두려워하는 절대병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가를 상대로 군사적행동을 운운한다는것은 가당치도 않은것이며 매우 위험한 자멸적인 행위입니다.

남조선 《정권》과 군부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궁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수단과 방법에 의거하여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슬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것이며 윤석열《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것입니다.

남조선의 보수《정권》은 시작부터 도가 훨씬 넘었다는것과 위험을 자초하는짓을 숙고해야 한다는것을 더 늦기 전에 자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윤석열이 집권전과 집권후 여러 계기들에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있습니다.

또한 남조선군부깡패들이 최근에 내뱉는 분수없는 망발들도 듣고있으며 미국과 함께 하는 주목할만한

모든 군사적행동들을 놓침없이 살피고있습니다.

더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수만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강도적인 론리로 우리의 자위권행사를 걸고들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도마우에 올라선 대통령, 가장 큰 위험앞에 로출된 《정권》이라는 손가락질을 피하려면 보다 숙고하고 입보다 머리를 더 굴려야 하며 때없이 우리를 걸고들지 말고 더 좋기는 아예 우리와 상대하지 않는것이 상책일것입니다.

동지들!

지금 우리 무장력은 그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철저한 준비가 되여있으며 우리 국가의 핵전쟁억제력 또한 절대적인 자기의 힘을 자기의 사명에 충실히, 정확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습니다.

로병동지들이 피흘려 지켜온 이 땅의 안전과 이 나라 제도와 주권은 더욱 억척같은 자위적방위력과 굳센 정신으로 철저히 담보되고있음을 확언합니다.

우리는 더욱 강해질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더 강해지는 철저한 군사력과 투철한 반제반미, 대남대적정신으로 우리 국가와 인민, 우리의 자주권을 철통같이 지켜내겠습니다.

적들의 발악적인 군비확장책동과 위험한 군사적기도들을 더욱 철저히 제압분쇄해야 할 우리 혁명의 정세는 우리 군사력의 더 빠른 변화를 필요로 제기하며 이 력사적과업의 책임적인 실현을 위하여 우리 당중앙은 최근에 국가방위력의 발전전략에 관한 임무를 책정하고 정확한 집행에로 령도하고있습니다.

전쟁은 힘과 힘의 랭혹한 충돌이지만 승전은 언제나 사랑이 열렬하고 신념이 강한 편에 있으며 이것은 첨단군사기술이 총발동되는 오늘의 전장에서도 달리될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민군대는 강대성과 백승의 원천인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항상 주력하여 견결한 혁명정신과 무비의 용감성, 억센 투지로써 가공할 타격력을 발휘하는 세계제일의 강군으로 육성될것입니다.

전체 인민들은 전승세대처럼 일신상의 모든 고락을 조국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애국의 길에 충정을 다 바치는 정신으로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앞에 과감히 나서야 하며 불요불굴하는 의지로 사회주의건설에 분투하여야 할것입니다.

반제계급투쟁이자 자기자신의 운명수호전, 조국사수전임을 순간도 잊지 않고 투철한 계급의식으로 맡은 초소와 일터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해나갈 때 우리의 창조와 건설은 가속화될것이며 적대세력들에게 더 큰 타격으로 될것입니다.

전승세대의 영웅정신을 훌륭히 이어받아 조국의 백년대계를 위대한 승리로 이어놓아야 할 계승자, 교대자들은 우리 새세대들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수백만 청년들을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이 물려준 정신적바통을 견결히 이어나가는 열혈의 혁명가, 애국투사로 준비시키는데 언제나 선차성을 부여할것입니다.

모든 청년들은 전쟁마당에서 어떻게 용감해야 하고 자기의 국기를 어떻게 사수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로병세대들처럼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길에 피끓는 심장을 내대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청춘의 열정과 대중적영웅주의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여 자기 시대를 또 하나의 새로운 영웅시대로 빛내여야 합니다.

전국의 전승혁명사적부문 강사들과 일군들은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탁월한 전승령도업적과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영웅적투쟁정신을 깊이 심어주는 힘있는 선전자, 교양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세월은 흐르고 강산은 변모되여도 영웅적인 투쟁정신으로 하여 세대와 세대가 한피줄로 굳건히 이어지고 진함을 모르는 하나의 생명으로 일체를 이루는 바로 여기에 우리 국가, 우리 인민특유의 불가항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우리 공화국은 언제나 필승불패합니다.

가장 준엄한 년대에 우리 국가와 민족을 구원하고 미래를 수호한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의 공적은 무궁번영할 공화국과 더불어 영원할것입니다.

존경하는 로병동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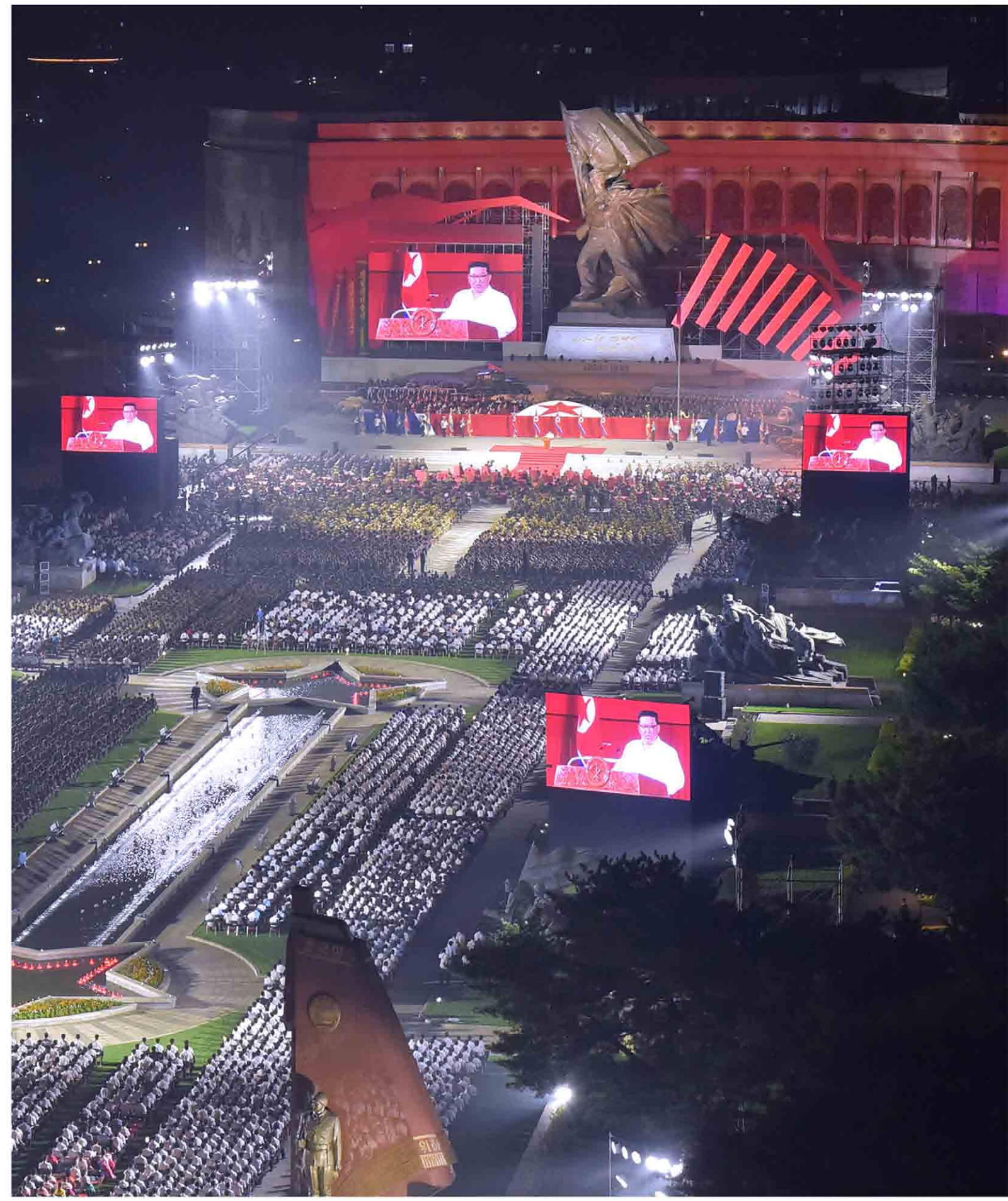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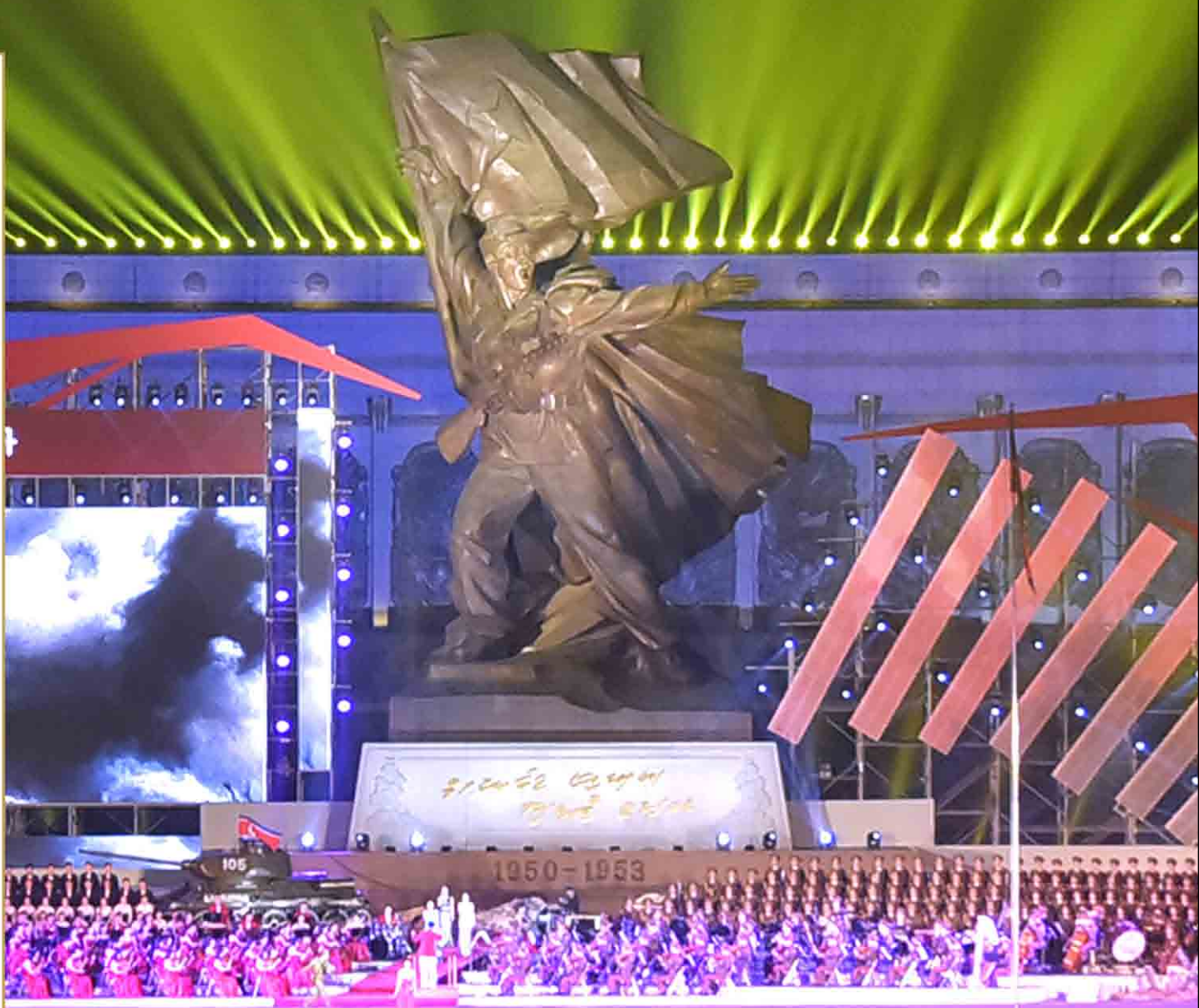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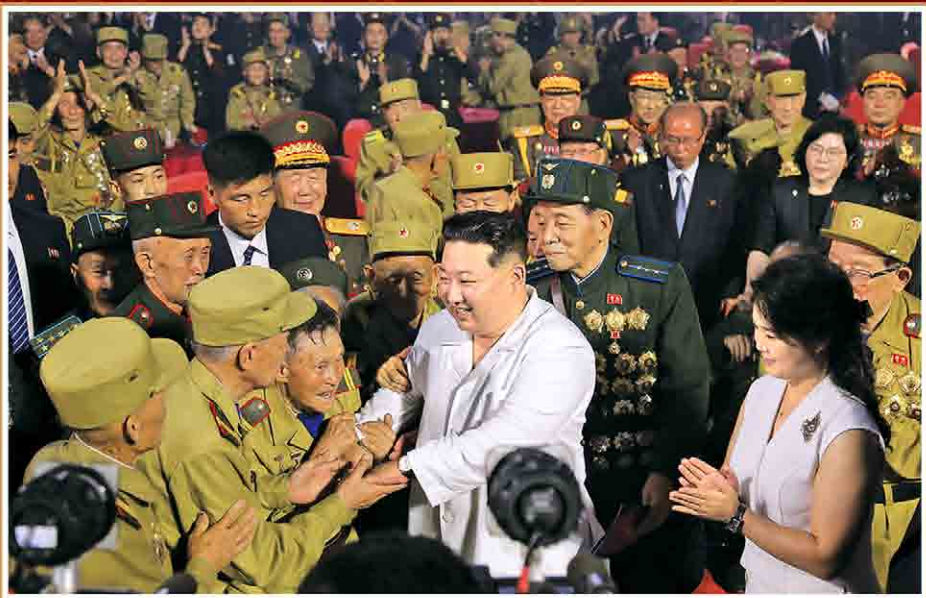
우리는 영웅적인 전승세대의 넋과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힘차게, 더욱 강인하게 투쟁함으로써 동지들이 사수한 이 땅에 강대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락원을 기어이 일떠세울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바이지만 로병동지들이 앉아계시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류의하여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부디 귀하신 몸들을 보중하여 오래오래 장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지들!

위대한 우리의 7. 27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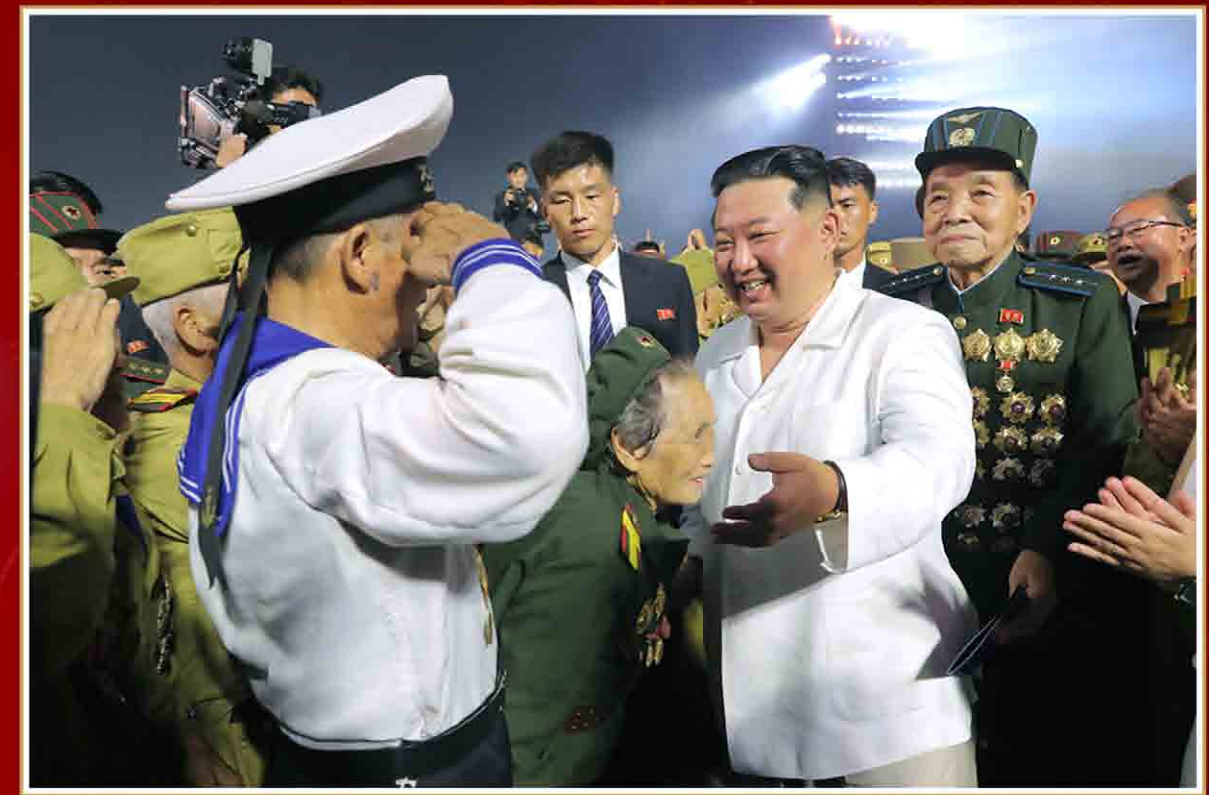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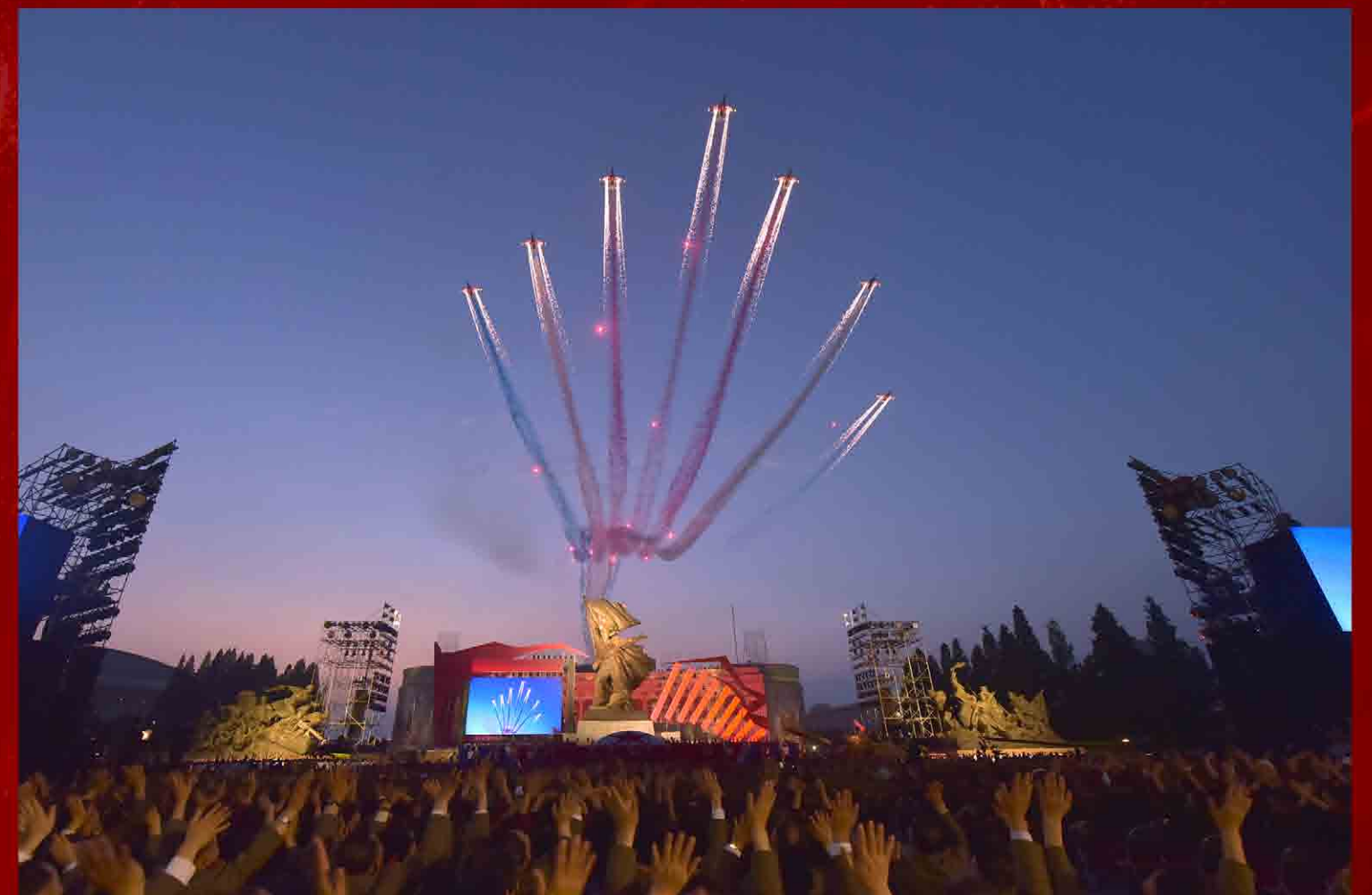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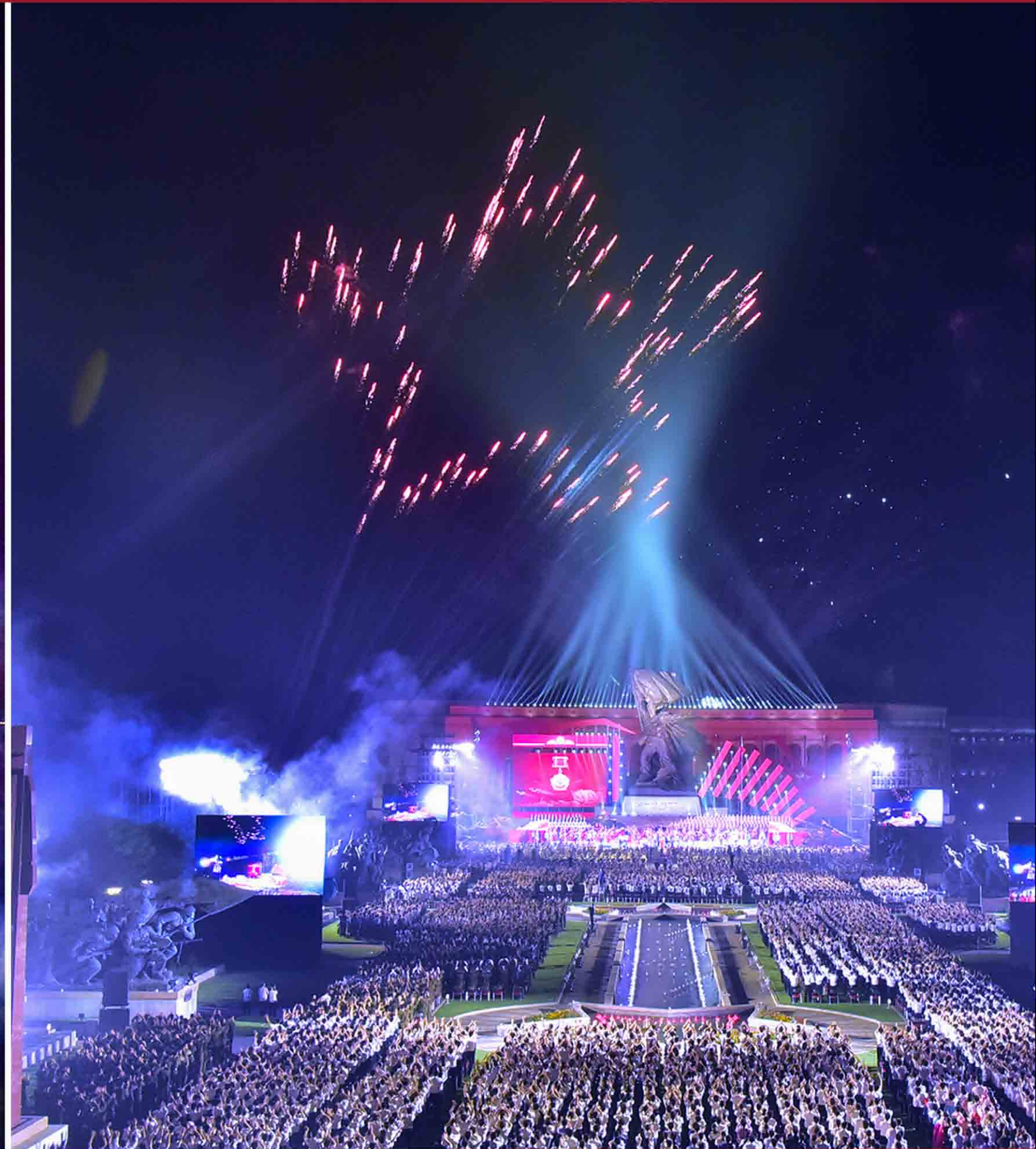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위대한 전승절을 기념하는 특색있는 공연무대에는 전시가요들과 승리의 년대들에 투쟁과 신념의 노래로 높이 울린 명곡들이 올랐다.

전선에서 찾아온 한장의 편지를

얼씨구나 승리봉우리

7.27.

7.27
위대한 전승
7.27 만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년대의 승리전통과 투쟁기풍이 우리 인민과 새세대들을 백절불굴의 애국투사들로 키우는 훌륭한 자양분으로, 새로운 승리와 기적을 끝없이 탄생시키는 진함없는 원천으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며 걸음걸음 따라서는 전쟁로병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다.

7.27

조국해방전쟁시기 근위부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공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기교비행이 이채롭게 진행되였다.

전승세대에 드리는 축하의 꽃다발인양 환희로운 축포들이 련이어 터져올라 명절의 밤하늘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전승절에 즈음하여 우의탑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전승절에 즈음하여 7월 28일 우의탑을 찾으시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화환들의 댕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은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동의 위업을 위해 제국주의침략을 물리치는 한전호에서 고귀한 피를 아낌없이 흘린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행한 간부들과 함께 우의탑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사에 력력히 아로새겨진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빛나는 전투적위훈과 공적은 불멸할것이며 피로써 맺어지고 력사의 온갖 격난속에서 더욱 굳건해진 조중친선은 사회주의위업의 줄기찬 전진과 더불어 대를 이어 계승발전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승혁명사적부문 강사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28일 제8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한 전승혁명사적부문 강사들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만나시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중앙홀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열광적인 《만세!》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성지를 지켜선 남다른 긍지와 자부를 안고 사상의 전초병, 근위병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있는 강사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승혁명사적부문 강사들은 당의 전승령도사를 대중에게 체득시키는 직접적담당자, 핵심들이라고 하시면서 높은 정치리론수준과 능란한 강의술, 해박한 지식으로 강의를 통속적이고 생동하게, 진실하고 감명깊게 하여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을 혁명의 1세, 2세들처럼 당과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견결한 혁명가들로 억세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승리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데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전승혁명사적부문 강사들과 일군들에 대한 우리 당의 기대를 한시도 잊지 말고 사적지관리사업과 교양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8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28일 위대한 전승절을 뜻깊게 기념한 제8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앞에서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조국에 불멸의 영광과 명성을 안겨준 7. 27의 승리전통과 영웅정신을 세기를 이어 빛내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을 세계만방에 힘있게 떨쳐가시는 불세출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열광넘친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류례없이 가렬처절하였던 혁명전쟁에서 피어린 군공으로써 미제국주의의 날강도적인 침략을 결사적으로 격퇴하고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해나가야 할 조국수호와 혁명보위, 계급성전의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하였으며 백발을 머리에 인 오늘에도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무한한 힘과 정신적기둥이 되여주는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에게 다시금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존엄높은 사회주의조선의 귀중한 모든것은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불멸의 공적과 하나로 잇닿아있다고 하시면서 전승세대의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가 후손들의 피와 살이 되고 참된 삶과 투쟁의 영양소로 되고있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필승불패의 원천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승세대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이 땅, 한생토록 애국의 성실한 자욱을 새겨온 조국강토를 전체 인민이 부럼없는 복락을 향유하는 강대하고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락원으로 꾸려나가실 철석의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전쟁로병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격정의 눈물속에 앞을 다투어 다가서는 전쟁로병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고 모두가 건강장수하기를 바라시며 오래도록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축하를!

조선로동당의 향도따라 사회주의승리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고있는 조선인민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 빛내여온 영웅조선, 영웅인민의 무한한 자긍심을 안고 조국해방전쟁승리 69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사람들의 물결이 굽이쳐흘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아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온 나라 인민의 숭고한 경의와 열렬한 축하속에 제8차 전국로병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위대한 전승의 날을 맞는 전국의 전쟁로병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대회는 일편단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굳게 믿고

온 나라의 열렬한 축하속에 제8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제8차 전국로병대회 진행

따르며 승리자들의 세대가 피로써 지켜내고 일떠세운 사회주의조선을 끝없이 번영하는 강대국으로 빛내여갈 불같은 열의가 끓어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위대한 전승 69돐에 즈음하여 제8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아 전화의 불길속을 함께 헤친 옛 지휘관들과 전우들에게 경의를 표시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에 있는 렬사들의 동상과 렬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렬사묘들을 찾아 꽃다발과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전승절을 맞으며 각지의 기관, 기업소들에 국기가 게양되고 집집의 창가마다에 람홍색기발이 나붓겼다.

중앙과 지방의 극장들에서 다채로운 경축공연들이 펼쳐져 명절의 환희를 더해주었다.

수도 평양을 비롯한 각지 봉사망들이 다양한 명절봉사를 받는 사람들로 흥성이였다.

당의 뜨거운 은정속에 마련된 문화휴식터들에서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근로자들과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각지에서 전쟁로병들과의 상봉모임들이 진행되였으며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전쟁로병들의 가정을 찾아 명절을 함께 경축하였다.

이날 이채로운 불장식으로 단장된 수도 평양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 69돐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각 도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는 청년학생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무도회가 진행되여 명절분위기를 더욱 돋구었다.

제8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아 전화의 불길속을 함께 헤친 옛 지휘관들과 전우들에게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69돐을 경축하여 전쟁로병들과 직맹원들의 좌담회, 녀맹원들과의 련환모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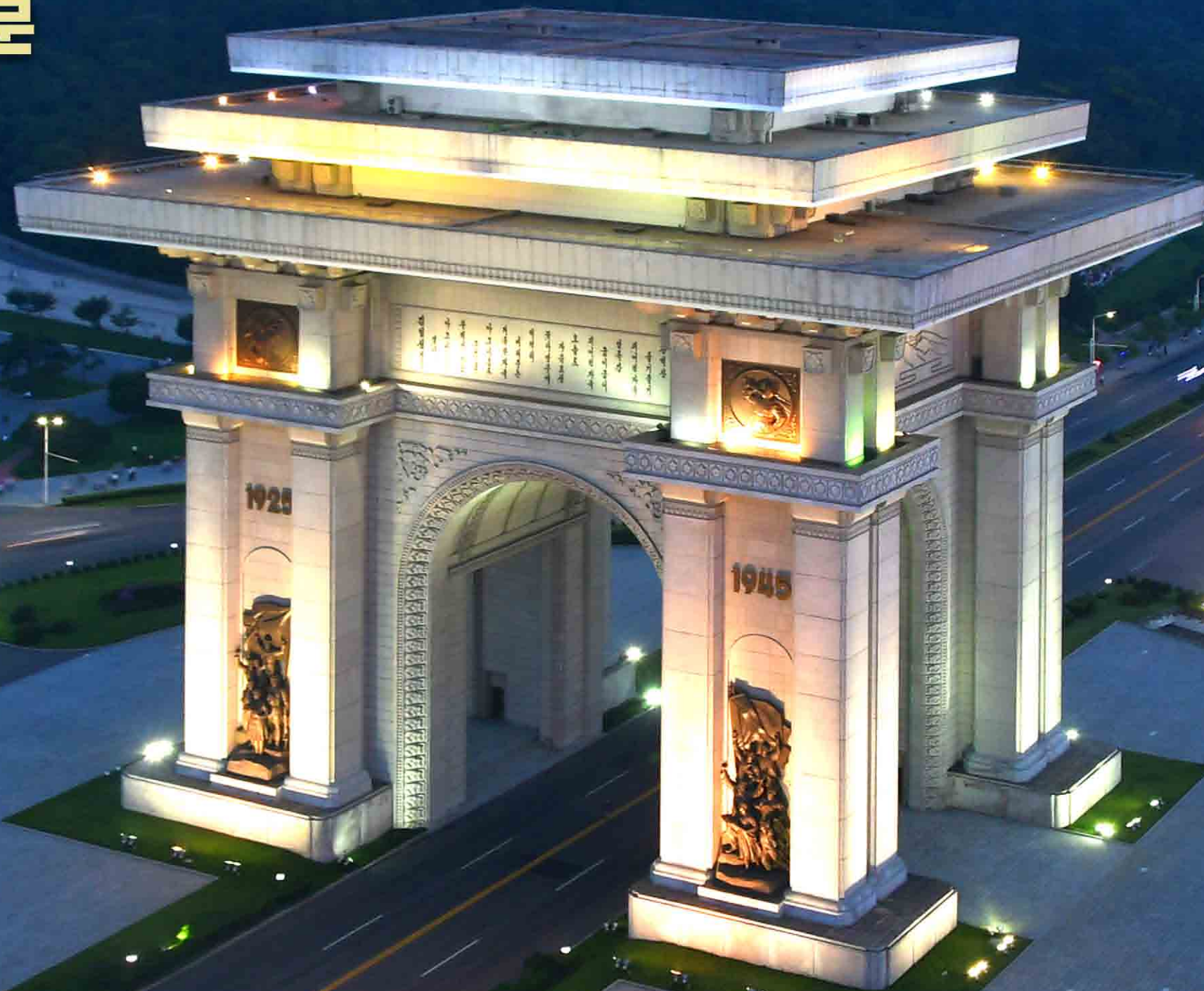
전쟁로병들과 청년학생들의 상봉모임에서 공화국기발을 전승세대가 새세대에게 정중히 넘겨주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 69돐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진행

조국해방전쟁승리 69돐을 경축하여 다채로운 문화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제8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한 전쟁로병들이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 귀빈으로 극진한 환대를 받으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였다.

화보 【기념편집】
1945. 8. 15.
20성상의 항일혁명투쟁이 안아온
조국해방의 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의 큰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20성상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마침내 주체34(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을 안아오시였다.
우리의 英明한 領導者 金日成將軍萬歲!
朝鮮独立萬歲!
解放万歲!

화보【기념편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업적을 길이 전하는
개 선 문
1925
1945
주체71(1982)년 4월 건립
높이 60m, 너비 52.5m, 폭 36.2m

기쁨과 행복 넘치는 송화거리

지난해 1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는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평양시에 앞으로 5년동안에 5만세대의 살림집들을 건설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3월에는 동평양의 송신, 송화지구에 1만세대의 살림집과 봉사시설들로 구성된 새 거리를 일떠세우기 위한 착공의 발파소리가 울리였다.

인민이 바라고 기다리는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철석의 신조가 비낀 착공식이였다.

몸소 착공식에 참가하시여 격동적인 연설로 건설자들모두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방대한 계획안과 설계안들, 건설력량편성과 시공, 자재보장은 물론 건설자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마음쓰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였다.

건설의 주력을 이룬 군인건설자들은 그이께서 안겨주신 평양시 5만세대살림집건설지휘부기발을 승리의 표대로 휘날리며 새로운 건설신화, 건설기적창조의 선두에서 내달렸다.

전체 건설자들이 벌린 충성의 돌격전, 치렬한 철야전과 수도시민들과 청년들의 야간지원돌격대활동, 온 나라 근로자들의 증산열의에 받들려 새 거리가 일떠섰다.

지난 3월 또다시 건설현장을 찾으시여 머지않아 입사하게 될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영상을 온 나라 인민은 친어버이의 모습으로 뜨겁게 새겨안았다.

4월에는 연건축면적이 백수십만㎡에 달하는 160여동의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등이 들어앉은 송화거리에 성대한 준공의 축포가 터져올랐으며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무상으로 배정받은 근로자들의 새집들이풍경이 펼쳐졌다.

나라에서 집을 지어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주는 공화국의 시책은 어제오늘에 실시된것이 아니건만 그처럼 어려운 조건과 환경속에서 솟아난 새 거리의 주인이 다름아닌 자신들이라는데로부터 이곳 주민들은 지금도 감격을 금치 못하고있다.

사진 황정혁
글 강수정

영예군인으로 제대되여 새집에 두번째로 이사하였다. 내 몸상태를 헤아려 층수낮고 해가 잘 드는 살림집으로 배정했다고 하였을 때 당과 국가의 다심한 정을 다시금 절감했다.

송신1동 3호동 2현관 1층 1호에
입사한 영예군인
장홍철 39살(로동자)

지난 4월 준공식에 참가하여 느꼈던 환희가 아직도 마음속깊이 간직되여있다.
나라에서 혼자 사는 년로자인 나에게까지 이런 훌륭한 살림집을 안겨주리라고 정말 생각지 못했다.

송화1동 1호동 1현관 7층 3호에
입사한 정순옥 71살

안해, 아들과 함께 새 거리에 이사왔다.
지난 6월 아들의 첫돌때 집을 찾은 손님들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온 가족을 축하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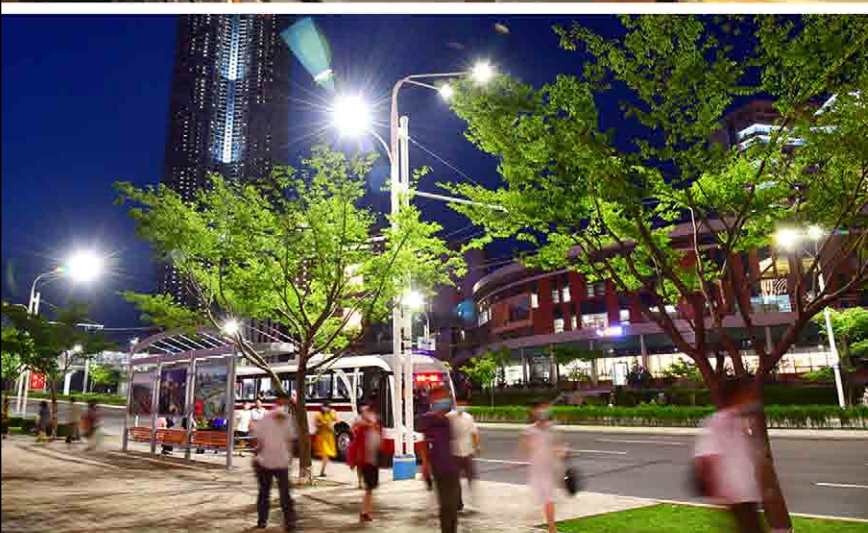
송화1동 4호동 2현관 4층 4호에
입사한 리충길 32살(로동자)

평범한 로동자에 불과한 내가 훌륭한 새집을 받아안았으니 송구스럽기만 하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여 이 은덕에 보답하겠다.

송신1동 3호동 2현관 8층 1호에
입사한 정일현 32살(로동자)

현관문을 나서면 상업시설들도 가까이 있고 문화휴식터도 곳곳에 있으니 안해도 아들도 무척 좋아한다. 새집에 와서 아무런 불편도 걱정도 모르고 사니 매일같이 감격스럽기만 하다.

송신1동 3호동 2현관 9층 1호에
입사한 최광철 40살(로동자)

우리는 행복해요
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고맙습니다

문수물놀이장

주체102(2013)년에 일떠선 문수물놀이장은 사계절 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고있다.

수도의 대동강반에 자리잡고있는 문수물놀이장에 기쁨과 랑만의 세계가 펼쳐졌다.

시원하게 트인 드넓은 부지에 자리잡은 물놀이장이 웃고 떠드는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고있다.

어른아이 너나없이 물속에 뛰여들어 물보라를 휘뿌리며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한여름의 더위가 가셔지는듯싶다.

사방 그 어디를 보나 이채롭고 흥취를 돋구는 모습들이 연방 펼쳐져 구경하는 재미도 여간이 아니다.

조약대에서 전문선수와도 같은 맵시있는 동작으로 물에 뛰여드는 사람들도 경탄을 자아내지만 충동을 못이겨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주춤거리는 사람들의 인상은 웃음을 금치 못하게 한다.

아찔한 물미끄럼대를 타고 지쳐내리며 떠나갈듯 환성을 터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수록 장관이다.

파도수조안에서 출렁이는 물결에 몸도 마음도 들뜬듯 환성을 지르는 사람들도 볼만하지만 여러가지 유희기구들이 즐비한 아동물공원에서 뛰여노는 어린이들의 명랑한 모습은 더 이를데 없다.

물놀이기재에 몸을 싣고 흐름길수조를 유유히 헤가르는 사람들이며 열띤 체육경기로 시간가는줄 모르는 청년들의 모습도 이채를 띤다.

황홀한 물의 세계에서 보낸 2시간이 어느새 흘러간듯싶어 많은 손님들이 봉사원들에게 시간을 연기해줄것을 청하고있다.

물놀이의 여가에 구내의 곳곳에 꾸려진 휴식터들과 봉사매대들에서 드는 청량음료들의 맛 역시 손님들의 흥취를 더해준다.

여름이 짙어가고 무더위가 계속될수록 주체102(2013)년에 훌륭하게 일떠선 문수물놀이장의 매력은 더욱 커가고있다.

사진 리철진
글 박의철

떠나고싶지 않은 문수물놀이장

천연건강음료 은정차

Natural Health Drink

UNJONG TEA

록차는 대표적인 은정차음료

비타민이 풍부히 들어있는 록차는 정신을 맑게 하고 운동능력을 높여준다.

또한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마시면 아주 좋다.

록차는 물질대사를 촉진시키고 피부를 맑게 하며 항암작용이 높다.

은정차음료는 계절에 따라 차게 혹은 덥게 하여 마실수 있으며 임의의 장소에서 간단히, 편리하게 마실수 있는 가장 리상적인 음료이다.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생산한다

-제122호양묘장에서-

제122호양묘장은 황해북도 황주군 광천리에 자리잡고 있다.

세면이 나지막한 산들로 둘러싸인 골짜기를 따라가며 펼쳐진 양묘장의 총부지는 200정보이며 그중 산림구역이 150정보이다.

주체105(2016)년에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실현된 양묘장의 생산구역은 20정보이다.

거기에 종자의 선별과 처리 그리고 파종으로부터 나무모의 재배와 포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공정들과 기질생산공정, 나무모저장시설 등이 집약적으로 배치되여있다.

온실들과 재배장들의 온도, 습도, 빛세기, 탄산가스함량, 통풍량, 관수량, 영양액시비량 등은 나무모재배에 가장 적합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할수 있게 구축된 통합

생산체계에 의하여 조절되고있다.

양묘장에는 산림과학의 발전과 보급을 선도해나갈수 있는 연구력량도 그쯘하게 갖추어져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해당 부문의 최신성과들과 이미 이룩한 실천적경험에 토대하여 생산장성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그들은 18만여그루의 나무를 심어 넓은 면적의 방풍림을 조성하고 수백만그루능력의 나무모저장고를 새로 건설하여 생산활성화의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종자처리 및 파종공정을 개선한것을 비롯하여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하여 해마다 2,000여만그루의 나무모들을 생산하여 각지의 산림복구장들에 보내주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김선경

종합조종실

나무모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있다.

양묘장에서는 나무모재배에 가장 적합한 온도, 습도, 빛세기, 탄산가스함량, 통풍량, 영양액시비량 등을 자동적으로 조종하면서 나무모생산을 늘이고있다.

묘목포장공정

파종흐름선

양묘장에서는
해마다 2,000만그루
이상의 수종이 좋은 여러가지
나무모들을 생산하고있다.

세계녀자태권도강자 황 영 미

명성을 떨치는 조선녀자태권도의 첫 세대 무도인들중에는 인민체육인 황영미도 있다.

군인가정의 외동딸인 그는 음악적 소질이 남달라 어릴적에는 앞날의 예술인감이라는 찬사를 들었다고 한다.

그의 부모들은 체육인으로서의 딸의 장래를 상상도 못했다.

그러한 황영미를 체육분야에로 이끈것은 중학시절의 체육교원이였다.

배구를 시작해서부터 인차 두각을 나타낸 그는 학교를 졸업하면서 어느한 체육단의 배구선수로 되였다.

태권도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가던 1980년대중엽 영미는 민족정통무도의 발전에 자신의 재능을 바칠것을 결심하였다.

영미는 10여명의 처녀들과 함께 유능한 감독들의 지도를 받으며 태권도기술을 하나하나 체득해나갔다. 어려운 고비들을 이겨내면서 직심스럽게 훈련한 결과 6개월만에 태권도유단자가 되였다.

주체76(1987)년 황영미는 조선이 처음으로 참가한 국제경기인 제5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였다.

그는 경기마다에서 자기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조선팀이 종합1등을 쟁취하는데 한몫하였다.

그는 단체맞서기 결승경기에서 자기보다 몸무게가 20kg이나 더 많은 상대방을 거꾸러뜨리고 팀의 승리를 결정지었다. 이어 위력경기에 나선 그가 힘있는 돌려차기로 5개의 송판을 다 격파하고 또다시 우승의 시상대에 오르자 각국의 태권도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 대회에서 그는 3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제5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3개 쟁취

제6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5개 쟁취

제7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3개 쟁취

그후의 제6차, 제7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황영미는 금메달만도 총 8개를 쟁취하였다.

선수생활을 마친 후 황영미는 주체85(1996)년부터 감독사업을 시작하였다.

11년간이나 조선태권도위원회 선수단(당시) 책임감독으로 활약하면서 그는 5차례의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많은 국제경기들에 품들여 키운 선수들을 이끌고 참가하여 람홍색공화국기를 세계의 창공높이 날리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주체92(2003)년 6월 그리스에서 진행된 제13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녀자감독최우수상을 받기도 하였다.

감독기간 그가 키운 선수들속에서 인민체육인 6명, 공훈체육인 14명이 배출되였다.

이러한 공로로 황영미는 로력영웅이 되였다.

주체109(2020)년부터 그는 조선태권도위원회 책임부원으로 사업하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김선경

태권도선수후비육성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다.

황영미가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받은 컵의 일부

낸 곳: © 조선화보사 2022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